

<논평에 대한 답변>

김 귀 성

(원광대학교)

최무석 교수님은 토론과정에서 본 발표자의 논지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의 도덕적 타락과 관련하여 교육개선을 위한 제언이 언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원불교에서 사용하는 ‘훈련’이라는 말이 서구의 훈련(Training)이라는 말과 같은 맥락의 뜻도 있지만 오히려 포괄적인 인격교육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고 건전한 인격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각 종교가 연대하여 인격교육의 이론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기관의 설치 검토를 제의해주었다. 이런 지적과 제언에 대해 발표자로서 최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물론 최교수님은 본인의 발표 내용에 대해 대체적으로 견해를 달리하거나 특별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몇 가지 점에서 조언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인격교육이 제기되는 오늘날 사회현상과 이에 대해 적어도 인격교육과 관련하여 원불교의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린 점에 대한 언급이 되지 않은 점과 서구의 훈련이라는 용어와 원불교의 훈련이라는 용어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점도 있으나 오히려 후자의 그것이 포괄적인 인격교육으로 보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최교수님의 조언은 매우 귀중한 지적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

먼저 최교수님이 지적한 최근 우리 사회의 도덕적 타락과 관련하여 교육개선을 언급하지 않은 점에 대해 필자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물론 원불교의 인격교육에 대한 접근이라 할지라도 시대적 현상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반드시 제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교수님의 조언은 공감이 된다. 예컨대 개교의 동기에서 현하 물질문명의 발달에 따라 인간이 사용해야 할 물질의 세력은

점점 확장되고 오히려 정신의 힘이 약화되어 물질의 노예생활을 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돈의 병, 원망의 병, 의뢰의 병, 배울줄 모르는 병, 가르칠 줄 모르는 병, 공익심 없는 병을 지적해 주었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원불교의 인격교육이 이런 도덕적 타락과 관련된 대안으로서 인격교육을 제기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의 근원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함께 요청된다. 소태산의 현대 사회의 도덕적 타락과 문제점 진단 및 대안은 물질 문명사회의 총체적인 문제점 뿐만 아니라 종교의 소명과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한 면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면도 있다. 뿐만 아니라 원불교는 분명 한국이라는 공간적 상황에서 출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경을 자칫 한국이라는 역사 문화적 상황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일 지나치게 이런 입장을 견지하면 문화권을 달리함에 따른 한계가 노정될 것이다. 따라서 원불교 출현의 배경을 자칫 한국이라는 역사문화적 상황에 한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인류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불교의 인격교육의 제창 배경은 오늘날 사회의 도덕적 타락 현상과 관련 뿐만 아니라 인류의 마음병에 대한 보편적 진단과 처방으로 보다 폭넓게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 사회의 도덕적 타락은 한국적 상황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인류 사회의 보편적 현상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원불교에서 사용하는 ‘훈련’이라는 용어와 서구의 훈련(Training) 개념간에는 같은 의미로 사용될 소지도 있지만 전자의 그것은 포괄적인 인격교육으로 보아야 한다는 지적에 필자도 동감한다. 다만 서구의 그것이 교육이라는 개념에 비해 어떤 행위나 기능을 반복적으로 연습하여 몸에 익힌다는 의미에서 원불교의 훈련이나 일반적 의미의 교육과도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비단 기능만이 아니라 지적, 정서적, 행동의 측면에서 전인적 도야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설사 특정 기능이나 행동을 반복하여 몸에 익힌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적 안목이나 정서적 도야를 공유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좁은 의미의 훈련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더우기 원불교의 훈련이라는 용어가 단순한 길들이기나 기능의 연마라기 보다는 인간의 지와 덕과 행동을 도야하는 의미로 볼 때 그것은 분명 교육과 동의어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불교의 훈련이라는 용어가 서구 개념의 훈련과 일치된다고 보다는 오히려 교육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